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평당 1900만원·후분양' 합의안대로 추진

광주시, 한양 제시한 선분양·1600만원은 현실성 없다 판단 위화감 조성 논란 80평형대 103세대 건립은 재조정키로

광주시가 중앙공원 1지구 명품 공원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행정행위 지연 등으로 사업 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지가상승 등 개발비가 대폭 상승하게 되면, 사업 좌초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 후분양을 조건으로 평당 1900만원으로 정한 사업자와 합의안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20일 빛고를 중앙공원 개발 주식회사와 이 회사의 최대 주주인 한양 측과 각각 면담해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그룹 등과의 토론회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그동안 광주시와 S빛고를 중앙공원측은 '평당 1900만원, 후분양' 추진에 합의했으나, 한양측에서 선분양 방식을 통해 평당 1600만원대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사업 가능성 점검 등을 위

해 사업 일정이 잠정 중단됐다.

광주시는 한양과 면담을 통해 사업 가능성을 점검하는 한편 지난 29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시민사회와의 토론회에서도 '선분양 평당 1600만원대' 건립에 대해 재점검을 했으나, 현실성이 없는 제안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시는 그동안 선분양 평당 1600만원을 제시한 한양측에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요청했으며, 한양측은 아직까지 구체적 자료 제출 없이 구두로만 사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여러 절차를 거쳐

결정한 '평당 1900만원, 후분양' 사업안을 두고, 갑자기 한양에서 '평당 1600만원, 선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긴급히 재점검을 했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한양측에 사업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어떠한 답도 듣지 못했다. 사업을 계속 미룰 수 없는 만큼 기존 합의안을 이달 말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80평형대 103호 건립 계획 등에 대해서도 재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업체측은 세대수 증가 등을 이유로 일반 시민이

선호하는 기존 34평형대를 없애고, 세대당 분양가 15억대로 예상되는 80평형대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지역시민사회 단체 등에서 공공성이 담보돼야 할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80평형대 아파트가 대규모로 들어설 경우 위화감 조성 등 각종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평형 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원회 판단에 따라 세부적인 사업 계획 변경도 가능한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재난지원금 지급 복직하는 주민센터 전남 여수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1일 쌍봉동주민센터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여수시는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30년 지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시급”

광주시의회 임시회서 지적 “청년주거서비스 전면 재검토”

올해 첫 임시회가 열린 광주시의회에서 북구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문제와 청년 주거서비스 지원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1일 열린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신수정(광주 북구3) 의원은 지지부진한 광주 북구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체 부지와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 논의된 이전 문제가 다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

다.

그는 “30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화됐고 편의시설 부족, 교통 체증 등으로 이전이 늦춰져서는 안 되는 시급한 실정”이라며 “(광주시의 용역에서) 이전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된 만큼 시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광주시가 이전 사업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시장 이전이 경제·정책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시는 용역을 토대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전 후보지 선정, 3000억원이 넘는 사업비 마련 등 어려움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1991년 개장한 각화동 도매시장은 시설 노후화와 교통 혼잡, 부지 협소 등으로 상인과 시민들의

불편이 커 이전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어진 최영환 (비례)의원의 5분 발언에서는 “지역 청년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청년 주거서비스 지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사업 추진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러지 않는 등 행정 절차를 무시한데다, 소득이 없거나 낮은 청년 30여명에게 지원한다는 사업이 창업 청년들에게만 지원되는 사업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 주거서비스 지원사업 전면 재검토와 함께 광주시가 추진하는 청년 정책과 지원사업에 정책이력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지방소멸위기지원 특별법 등 ‘지역 숙원 3법’ 처리 촉구

김영록 지사, 국회 방문 건의

김영록 전남지사는 2월 임시 국회 개회에 맞춰 국회를 방문해 지방소멸위기지원 특별법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1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연 원내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원 이철규 의원(간사),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간사), 신성훈 의원과 면담하고 “정당차원에서 전남의 핵심 현안 3개 법안이 이번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지역숙원 3법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지방소멸위기지원 특별법 등이다.

이낙연 대표와의 자리에서 김 지사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등 지역 현안 3법은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에 따라 반드시 입법이

필요하다”며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고 “여·야 협치를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 시급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의의 있게 입법될 수 있도록 현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과 균특전환사업 계속 보전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지방소멸위기지원 특별법을 포함한 행정안전위원회의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2월 국회 회기 중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 지사가 입법을 건의한 3개 법안은 모두 의원 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계류 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시원하고 푸른 광주 만들기’ 본격화

시, 올 4개 녹지정책 10대시책 발표

광주시가 기후변화 등에 따른 환경오염을 막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원하고 푸른 광주 만들기’ 사업을 본격화한다.

광주시는 1일 “올해 ‘4개 녹지정책분야, 10대 시책’을 확정하고 시민과 함께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가장 먼저 미래세대에 공원녹지 방향을 제시할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한다.

시는 올해로 4년차를 맞은 30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지난해까지 505만그루의 나무를 심었으며, 2027년까지 3000만그루를 모두 심을 계획이다. 시는 광주시립수목원 조성 등을 통해 공공부문 식재를 활성화하고, 내나무 갖기와 나무 나눠주기 등 민간부문에서도 나무심기의 붐을 일으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시원하고 푸른 녹색도시 광주를 완성하겠다는 포부다.

시는 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을 건립해 동아시아 국가 및 세계지질공원의 교

육훈련을 담당하고, 동아시아권 세계지질공원 관계자들의 교류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327억원이 투입되며, 광주·담양·화순을 아우르는 무등산권 지질공원을 기반으로 지역 지질관광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광주호 주변 ‘가사문화관’ 일원에 조성하는 광주 생태문화마를 복합단지 사업도 눈에 띈다. 시는 총 사업비 398억원을 들여 무등산, 광주호 호수생태원, 가사문화관과 어우러지고, 남도의 전통문화를 연계한 광주만의 독특한 관광 명소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산림복지 인프라를 위한 광주시립수목원 조성도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시는 총 사업비 470억원을 들여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심 열섬현상 완화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된다. 시는 3년간 200억원을 들여 도시 바람길 숲을 조성하고, 산업단지 주변에는 미세먼지 차단 숲을 만든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화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추가모집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 ~ 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학	과	
인문사회	신	학	○
	한국어교육학과		○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평생교육상담학 전공)		○
사범	유아교육과		○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강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1. 2. 22(월) ~ 24(수)
- 전형일: 2021. 2. 25(목) 오전 10시

▶ 입학문의 062)605-1114

원서접수는
추가모집 2021. 2. 22(월) ~ 24(수)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www.kwangshin.ac.kr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